

『史記』 「孔子世家」

孔子生魯昌平鄉陬邑¹⁾. 其先，宋人也，曰孔防叔²⁾. 防叔生伯夏³⁾, 伯夏生叔梁紇⁴⁾. 紇與顏氏女野合⁵⁾, 而生孔子. 禱於尼丘, 得孔子. 魯襄公二十二年, 而孔子生. 生而首上圩頂⁶⁾, 故因名曰丘云. 字, 仲尼; 姓, 孔氏.

殷나라의 후예인 宋나라는 子姓이고, 周나라는 姬姓이다. 하나의 공동혈연 관계의 종족이 姓이고, 이 종족에서 여러 갈래로 파생 된 것이 氏로, 姓이 넓은 개념이고 氏가 상대적으로 좁은 개념이다. 氏는 관직명, 지명 등으로 정했다. 후대에는 姓과 氏의 구별이 없어진다.

襄公이 弗父(보)何를 낳았는데, 불보하가 君位를 아우 厲公에게 양보하였다. 弗父何-宋父周-世子勝-正考父-孔父嘉로 이어졌는데, 5대에 公室[王室]의 성원으로서의 자격이 끝나기 때문에 따로 公族이 되고 姓을 孔氏로 삼았다. 이후 木金父(보), 孔子의 고조부 暲(역)夷, 증조부 防叔[魯나라로 망명], 조부 伯夏, 부 叔梁紇.

-
- 1) 陬邑: 孔子의 아버지 叔梁紇이 다스리던 읍이다. 공자는 魯나라 추읍의 闕里에서 태어났다.
 - 2) 孔防叔: 孔子의 曾祖父이다. 魯나라 防邑의 大夫를 지내서 防叔이라 했다. 防叔의 祖父 孔父(보)嘉가 宋나라 殤公을 옹립하려다가 반역죄에 연좌되어 BC710년에 사망했다. 이후 공방숙은 귀족 華氏의 핍박을 두려워하여 노나라로 망명했다. 노나라 僖公은 공방숙을 防邑의 대부로 봉했다.
 - 3) 伯夏: 공자의 祖父이다.
 - 4) 叔梁紇: 孔紇이다. 字가 叔 혹은 叔梁, 이름이 紇이다. 陬邑의 대부로서 勇力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郚人紇 또는 鄆叔紇이라고도 불린다.
 - 5) 野合: 설명이 분분한데, 叔梁紇[夫]과 顏徵在[婦]의 나이 차이가 너무 많다는 설이 있다. 숙량홀이 魯나라 施氏에게 장가들어 9명의 딸을 낳았고, 그의 첩이 아들 孟皮를 낳았는데 맹피는 발에 장애가 있어[病足] 안징재에게 다시 장가들어 공자[字仲尼]를 낳았다.
 - 6) 圩頂: 圩, 音烏; 頂, 音鼎. 言頂上廡(유;낮다)也. 정수리 부분이 움푹 들어간 것이다.